

녹색 방패속에 노란색 두 글자가 새겨진 상표로 상징되는 英國의 브리티시 피트롤리엄社(BP)가 우리나라에 본격 진출한다. 우리나라 석유산업 초창기에 진출했던 美國系 메이저(국제석유자본)들이 80년대에 들어와 하나, 둘 철수하는 마당에 그것도 유럽系 石油메이저가 우리나라 석유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것은 범상히 볼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 9월 25일은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韓國 석유산업의 막내둥이 極東石油와 英國 최대의 석유회사인 BP가 미래의 용비를 다짐하면서 이날 런던에서 자본금 8백42억원의 합작회사 설립계약을 체결, BP가 5천만달러(지분율 40%)를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BP의 韓國진출이 의미하는 것

BP는 오래전부터 東南아시아 진출을 꾸준히 모색,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해 왔다. 피터 윌터스 BP회장은 최근 「사우디스트 아시아 디벨롭먼트 다이제스트」誌에 게재한 「아시아·太平洋지역에서의 石油의 장래」란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東南아시아는 제3세계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특히 韓國등 신흥 개발도상국은 에너지소비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메이저들은 자본투자자와 기술·마케팅지원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極東石油와 BP의 제휴는 오래전부터 東南아시아와 극동지역에의 진출을 추진해온 BP의 경영전략과 신규정유공장 건설에 따른 엄청난 자금과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極東石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極東石油는 지난 82년부터 정제능력 6만B/D규모의 정유공장과 3만4천B/D규모의 重質油분해시설을 건설중이다. BP는 내년 10월에 완공예정인 이 신규프로젝트에 자본참여와 함께 기술인력도 투입하게 된다.

국내 석유산업과 메이저의 제휴관계는 지난 60년대초 油公과 걸프의 합작이 그 효시를 이룬다. 그후 1969년 湖南精油가 칼텍스, 그리고 1972년 京仁에너지가 유니온오일과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그후 1980년 걸프가 철수했고, 1983년에는 유니온오일이 우리나라를 떠났다. 현재는 湖南精油와 제휴한 칼텍스만 남아 있다.

지난 1909년에 설립된 BP는 85년도에 매출액 5백31억달러를 기록한 英國 최대의 민간기업이며, 또 85년도 세계기업랭킹에서는 GM, 엑슨, 로얄더치셀, 모빌에 이어 제5위(84년도 제6위)로 올라선 石油메이저이다. 원래 BP는 석유사업으로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출발했으나, 이제는 그 사업영역을 석유화학, 石炭, 가스, 천연자원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에는 경영다각화전략의 일환으로 식품, 정보산업, 금융업등에 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BP의 정유공장 현황

國 別	會 社 名	정유공장소재지	지 분 율 (%)	연간정제 능력(톤)	
濠 洲	BP Refinery (Kwinana)	Kwinana	100	4,900,000	
	BP Refinery (Westernport)	Westernport	100	2,700,000	
벨 기 에	SIBP	Antwerp	50	16,900,000	
	캐 나 다	BP Canada	Montreal	66	3,600,000
키 프 러 스	Cyprus Petroleum Refinery	Trafalgar	66	3,900,000	
		Larnaca	15	700,000	
에 이 레	Irish Refining Co. Ltd.	Whitegate	16	2,500,000	
	프 랑 스	Société Francaise des Pétroles BP	Dunkirk	78.77	4,200,000
		Société Francaise des Pétroles BP	Lavera	78.77	8,600,000
		Société Francaise des Pétroles BP	Vernon	78.77	3,500,000
가 북	Raffinerie de Strasbourg	Strasbourg	26.2	4,550,000	
	Cociété Equatoriale de Raffinage	Port Gentil	3.08	930,000	
西 獨	Deutsche BP A.G.	Dinslaken	100	8,600,000	
		Vohburg	100	5,100,000	
		Hamburg	100	2,900,000	
		Hamburg	100	400,000	
		Ingolstadt	50	4,000,000	
		Speyer	25	7,000,000	
아이보리코스트	Société Ivoirienne de Raffinage	Abidjan	7.2	1,800,000	
케 나	East African Oil Refineries	Mombasa	12.75	3,900,000	
네 델 란 드	British Petroleum Raffinaderij Nederland	Rotterdam	100	21,600,000	
뉴 질 랜 드	New Zealand Refining	Whangarei	23.66	3,200,000	
세 네 갈	Société Africaine de Raffinage	Dakar	11.8	800,000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Petroleum Refining	Freetown	10.2	640,000	
싱 가 포 르	BP Refinery Singapore	Singapore	100	1,400,000	
	Singapore Refining Company	Singapore	30	7,600,000	
南 아 프 리 카	Shell & BP S.A. Petroleum Refineries	Durban	50	7,600,000	
수 단	Shell & BP (Sudan)	Port Sudan	25	1,200,000	
스 웨 덴	BP Raffinaderi(Goteborg)	Gothenburg	78	4,800,000	
스 위 스	Raffinerie du Sud-Ouest	Aigle	25.5	3,100,000	
터 키	Anadolu Tasfiychanesi	Mersin	17	4,500,000	
英 國	BP Oil	Kent Refinery	Isle of Grain	100	10,500,000
		Llandarcy	Llandarcy	100	5,500,000
		Grangemouth	Grangemouth	100	8,500,000
		Northern Ireland	Belfast	100	1,500,000
美 國	The Standard Oil Company (Sohio)	Marcus Hook (Pen)	53	8,300,000	
	The Standard Oil Company (Sohio)	Toledo (Ohio)	53	5,700,000	
	The Standard Oil Company (Sohio)	Lima (Ohio)	53	8,300,000	
짐 바 브 웨	Central African Petroleum Refineries	Umtali	20.75	990,000	

석유부문에 있어서 BP는 석유개발에서부터 생산·수송·정제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 최근에는 알라스카와 北海유전 개발에도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자유세계에서 발견된 30여개의 大油田중 15개 유전개발에 참여했다.

현재 BP는 세계 각지에서 모두 39개의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정제능력은 1억4천8백만톤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석유수요의 경질화추세에 맞추어 정제시설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원유 및 석유제품 트레이딩을 확대하고 있다.

BP 총수입의 절반 이상이 석유제품 판매와 原油무역에서 나올 정도로 이 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하류부문의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는 BP오일 인터내셔널社(BPOI)이다.

BP에서 생산된 각종 석유제품은 세계 50여개국에 수출되며, 특히 윤활유제품은 80여개국에 판매되고 있다. BPOI의 윤활유판매사업은 아프리카 및 中東지역에서 BPOI의 주력사업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BPOI는 極東지역과 中南美지역에 대한 시장진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BPOI의 석유제품거래량은 하루에 2백만배럴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전체 거래의 70%는 유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제품 판매는 세계각지에 산재해 있는 自社 또는 합작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한 후 自社 판매망을 통해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의 일관체제를 갖춘 BP의 합작진출은 앞으로 국내석유시장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유5사의 원

유정제능력은 79만B/D로 내년 10월 極東石油의 瑞山정유공장(6만B/D)이 완공되면 모두 85만B/D로 늘어나게 된다.

아무튼 BP의 對韓진출은 국내 석유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P 합작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추진에서 지금까지의 美日일변도에서 유럽으로 투자선이 다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15년간 英國의 對韓투자액이 고작 3천8백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할 때, BP의 5천만달러 對韓투자는 획기적인 것으로서 앞으로 西歐의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진기술의 도입이다. 현재 건설중인 3만4천 B/D 규모의 중질유분해시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플랜트로 완공후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서는 메이저의 선진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셋째, BP의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10월에 瑞山정유공장이 완공되면 국내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또한 세계적인 판매망을 가진 BP를 통해 수출과 임가공을 병행함으로써 초기의 가동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앞으로 석유위기가 재발시 BP와 같은 메이저와 제휴함으로써 원유의 안정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이저 BP와 極東石油의 합작은 앞으로 국내석유시장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그만큼 極東石油과 BP의 제휴가 지닌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

□ 石油圖書案内 □

石油 및 石油産業의 入門書

石油의 基礎知識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編著 —